‘이제 드론으로 농산물 관리도 스마트하게’

LX공사 - 농식품부, 업무협약 체결
GIS 기반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와 LX공사는 2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GIS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사장 최창학)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스마트한 농산물 관리를 위해 정확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토대로 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LX는 2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GIS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수급 불안정 해결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LX는 시범지역인 제주도와 강원도 평창군 농지를 대상으로 드론(UAV)을 띄워 지적기반의 정확한 디지털 팜맵을 구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다양한 농업 데이터를 접목시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예측모델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LX는 국토정보기본도 위에 드론 플랫폼을 접목시켜 농지의 위치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드론 영상의 갱신체계를 만들어 품질검증·표준화 모델로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드론을 활용해 농지를 조사할 경우 기존 항공 촬영보다 10배 이상 뛰어난 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30~50% 비용 절감은 물론 촬영기간이 4배 이상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격 변동 폭이 큰 농산물이 재배되는 제주도와 강원도 평창군에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적정한 재배면적 유지는 물론 농가 소득 안정화로 이어져 농산물 수출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최창학 사장은 “지난해 공공 분야 드론 전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LX는 정확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토정보 전문기관”이라며 “농업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생활 물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물교감교육 프로그램

원광대, 성과 확산 기여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보건보완의학대학원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가 동물매개심리상담사 자격을 가진 대학원 학생들을 주축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주관하는 중소가축 활용 동물농장 모델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초등학교 현장 컨설팅을 3년 연속 수행하면서 ‘동물교감교육’ 성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동물교감교육’은 일선 초등학교에서 강아지와 토끼, 닭, 염소 등 친숙한 동물을 키우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통해 인성을 바르게 키우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올해 사업은 김제시와 상주시 초등학교에서 보건보완의학대학원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맞춤형 동물교감교육 프로그램이 총 14회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토끼와 염소 집 꾸미기, 돌보기 일지쓰기, 교감하기 등 다양한 체험 및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원광대 보건보완의학대학원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는 이 사업 이외에도 ‘드림스타트 소외아동을 위한 동물교감교육’, ‘낮 병원 청소년을 위한 동물교감교육’, ‘특수아동과 함께하는 동물교감교육’ 등 다양한 동물교감교육 사업 수행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학과장 김옥진 교수는 “대학원생들이 동물매개심리상담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참여한 초등학생들에게는 생명존중을 비롯해 인성 및 사회성 향상 등 긍정적 교육 성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동물교감교육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상호교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소방서, 완강기 체험장 설치 · 운영

익산소방서(백성기 서장)은 20일 고층건물과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 교육·홍보를 위해 익산소방서 안전체험관에 완강기 체험장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 시 몸에 줄을 매고 해당 층에서 아래 땅까지 천천히 탈출할 수 있는 비상용 피난 기구로써, 다중이용업소,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3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물의 경우 객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기준이 강화된 후 대부분 대상건물에 완강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만, 완강기 자체를 모르거나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이달 초 안전체험관에 완강기 거치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등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도록 기자재를 갖췄으며 이번 설치된 완강기 체험교실을 통해 찾아오는 시민과 특히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연중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홍보 담당자(063-839-324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남원소방서, 구룡폭포서 등산객 구조활동 벌여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주천면 구룡폭포 등산로 계단에서 낙상한 등산객(63, 여)을 응급처치 후 산악용 들것을 이용해 구조하며 등산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구조활동에는 119구조대장 김길수 외 3명이 출동했으며, 낙상으로 거동이 불가한 등산객이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한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진장소방서, 빗길 교통사고 인명 구조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 무진장119구조대는 지난 18일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장수 IC근처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구조활동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55분경 발생한 사고로써, 1톤 트럭이 앞서가던 트랙터와 추돌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무진장119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에 갇혀 있는 운전자 한모(48)씨를 안전하게 구출했으며, 운전자는 다행히 경상이었다.

홍성광 구조대장은 “비오는 날에 교통사고 인명구조를 실시할 경우에는 장비들이 물기로 인한 미끄럼으로 인해, 구조대원의 신중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요구조자들은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요구하는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북대병원 올 첫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20일 본관에서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인권경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객지원실을 고객·인권지원실로 개편하고 산하에 인권경영팀을 신설한데 이어 인권경영을 자문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병원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 4명과 지역사회 대표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연주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인권경영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인권경영헌장(안)을 검토하고 오는 7월 인권경영 헌장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에 공포하기로 했다.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이연주 변호사는 “최근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다.”며,“병원의 특성에 맞춰 인권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인권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은 인권경영위원회의 활동을 계기로 인권 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며, 인권경영규정을 바탕으로 인권경영선언문 공포,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인권감수성교육과 인권경영 교육 등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안산장학재단, 익산병원에서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안산장학재단(이사장 이준)은 최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익산병원 연수관에서 실시한 장학금 전달은 관내 지역 고등학생(18명)과 대학생(5명) 및 익산병원 임직원 자녀(44명), 총 67명에게 장학금 4,43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수상자들은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된 학생들로 평소 성적이 우수하고 익산병원의 설립이념인 “사랑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생들이 추천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남원시 최초 ‘퍼실리테이터’ 탄생… 양성교육 수료식

남원시 최초로 퍼실리데이터(회의촉진자) 19명이 탄생했다.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달 22일부터 주 1회 6시간씩 총 4회에 걸쳐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실시해 최근 수료식을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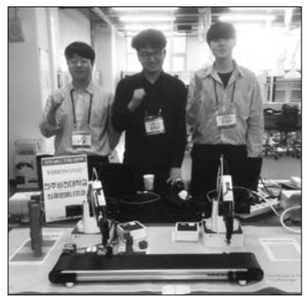
퍼실리테이터는 원탁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및 워크숍의 기획, 진행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남원시에서는 마을활동 경력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수강생 20명을 선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남원시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시민역량을 양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마을활동 전문가 양성교육 중 하나이다.

수강생들은 현재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와 사례, 토론, 멘토링기법 실습 등으로 6시간의 수업을 마쳤으며, 수강생들은 수료식에서 ‘남원 퍼실 1기’ 모임을 결성하고, 앞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돕는 일에 힘쓰는 공익적 모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남원시는 마을활동가 수요도 조사를 바탕으로 6월부터 새내기 활동가를 위한 마을활동 전문가양성 입문과정을, 활동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역량강화 워크숍 등의 과정을 각 8강에 걸쳐 운영할 예정에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비전대 신재생에너지과, 세계로봇 한국대회서 우승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지난 18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세계로봇한국대회에서 우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로봇암 형태(Manipulate type)의 로봇 플랫폼을 이용해 참가자들이 로봇 사용자가 되어 지능형 학습을 통한 작업의 최적경로를 찾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과 논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대회다.

조성진, 이훈, 장영준 3명으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과팀은 이번 한국대회 우승으로 매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WRC(Worlsd Robot Competion) 세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자격을 획득하게 됐다. 대회 참가비, 체류비는 모두 세계 대회를 주최하는 DOBOT측에서 부담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청 직원들, 영농철 맞아 농가일손돕기

남원시 직원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일손을 도우며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17일과 20일에는 수지면과 주민복지과 직원 50여명은 수지면 산촌마을 황덕주 씨 농장에서 복숭아 솎기와 봉지 씌우기 작업을 실시했다.

황씨는“아내와 단둘이 농사를 짓고 있어 일손이 많이 필요했다며, 직원들의 도움으로 적기에 일을 마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시민소통실 직원 15명도 아영면 두락 마을 노기환 씨 포도 농장을 방문해 포도 순 따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노씨도 “일손이 부족해 포도 알 솎기와 순 처리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며“바쁜 업무에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도와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호국원, 나라사랑 태극기 꽂기 체험행사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묘역에 안장되신 호국영령의 숭고한 위훈을 기리는 나라사랑 태극기 꽂기 체험행사가 다양한 봉사단체에서 참여한 가운데 묘역에 태극기 물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0일부터 대한적십자사 임실지부(5.20), 제35보병사단(5.23), 임실치즈과학고(5.24), 한국청소년 전북연맹(5.25), 임실군재향군인회(5.27), 익산 성북초(5.28), 임실 성수 중(5.31), 임실 청웅 초(5.31) 국립묘지 1사1묘역 가꾸기 협약단체인 임실치즈축산협동조합(5.28), 우석대학교(5.31), 전북은행(6.1), 전북개발공사(6.3)등 총 600여명이 참여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산해경,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찾아가는 안보교육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관내 무녀도 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찾아가는 안보교육 실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등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초점을 두고 안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안보교육을 통해 뼈아픈 민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평화통일을 향한 미래의 과제와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정훈 기자